

PEACE ROAD

magazine



봄

Vol. 24 | 2015



Cover Story

광복 · 분단 70년-한반도 평화통일의 길

분단 해소, 경제공동체가 해법이다 | 최수영

내생각에는 | 신장철

한일수교 50년, 동반자 관계로 거듭 나아

인물탐방 | 이리형

“한일터널 기술적 문제 민간차원에서 풀어야”





- 32 **내 생각에는** | 한일수교 50년...동반자관계로 거듭나야 | 신장철
- 34 **기고 I** | 광활한 실크로드는 생명의 핏줄인가 | 김한수
- 39 **기고 II** | 한·일 갈등 해소, 문화융화에 달렸다 | 마스부치 게이이치
- 43 **기고 III** | 피스로드는 지구촌 평화세계 완성사업 | 박정진
- 46 **현장에서** | 한일대학생들이 이룬 '작은 평화세계' | 조주홍
- 48 **도서소개** | 피스로드 - 서울에서 희망봉 그리고 산티아고까지 | 세계평화터널재단 역음
- 49 **NEWS & ISSUE** | 평사모 신년하례회...국가원로 7명 고문 위촉 "남·북·러 철도 연결해 유라시아로 내달리자"
- 50 **발행인의 편지** | DMZ 활용, 피스로드 실현 앞당기자 | 김병수

커버스토리 광복·분단 70년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

- 06 통일한국은 분단현실 타파해야 | 정태익
- 08 김정은, 유일영도체제 공고화 혈안 | 이관세
- 13 한반도 통일 선결과제는 북한 비핵화 | 이춘근
- 17 분단 해소, 경제공동체가 해법이다 | 최수영
- 21 통일대박으로 가는 4가지 지름길 | 신창민
- 26 **인물탐방** | 초고층 건물 선진화의 주역 이리형 "한일터널 기술적 문제 민간차원에서 풀어야"



러시아는 올해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을 맞아 한·러·조·러 회담 등 다양한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이 도시는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동북아시아 군사안보 정세는 물론이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어 대륙진출을 앞둔 한국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이다. 사진제공=신장철 송실대 교수 겸 사진작가

발행일 2015년 3월 16일
 발행인 김병수
 주 간 정성수
 사 진 조주홍
 디자인 장인선

발행처 세계평화터널재단
 150-714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대영빌딩 921호
 등록 2010년 9월 3일
 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11
 전화 02)3471-7696 팩스 02)3471-7690

連結と疎通、平和の道を開く総合情報誌

PEACE ROAD

Magazine

春

通巻 24 号 2015

カバーストーリ

光復・分断 70 年—韓半島平和統一の道

分断解消、経済共同体が解決方法だ/チェ・スン

私の考えは/シン・ジャン Chol

韓日修好 50 年、 동반者関係を積み重ねていくべき

人物探訪/イ・リヒョン

“韓日トンネルの技術的問題は民間レベルで解決すべ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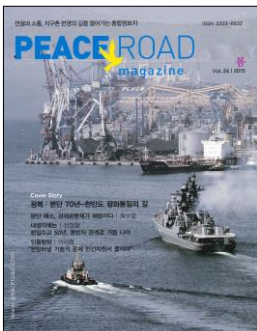
CONTENTS 2015 春 通巻 24号



- 32 私の考えは / 韓日修交 50 年…同伴者関係の積み重ねを / シン・ジヤン Chol
- 34 寄稿 I / 広大なシルクロードは生命の血筋か / キム・ハンス
- 39 寄稿 II / 韓日葛藤解消、文化融和に繋がる / マスブチ・ケイイチ
- 43 寄稿 III / ピョンスロトは地球村平和世界の完成事業 / パク・チョンジン
- 46 現場から / 韓日の大学生ら築く‘小さな平和世界’ / チョ・チュホン
- 48 図書紹介 ピョンスロトーソウルから喜望峰そしてサデ・イコまで / 世界平和トンネル財団編
- 49 NEWS & ISSUE / ピョンスロト新年賀礼会…国家元老 7 名を顧問に委嘱 “南北露鉄道で連結しユーラシアを走る”
- 50 発行人の手紙 / DMZ 活用、ピョンスロト実現を促進しよう / キム・ピョンス

カバーストーリー 光復・分断 70 年 韓半島平和統一の道

- 06 統一韓国は分断の現実を打破すべき / チョン・テイク
- 08 金正恩、唯一領導體制公告に血眼 / イ・ガンセ
- 13 韓半島統一の先決課題は北韓の非核化 / イ・チュンゴン
- 17 分断解消、経済共同体が解決方法だ / チェ・スヨン
- 21 統一大当たりに行く 4 つの近道
- 26 人物探訪 / 超高層建築物の先進化の重鎮 / イ・リヒョン “韓日トンネルの技術的問題は民間レベルで解決すべき”



ロシアは今年、第二次大戦の戦勝 70 周年を迎え、韓口、朝口会談など様々な首脳会談を期待している。写真はロシアの極東艦隊が主導するウラジオストク港。この都市はロシアの戦略的要衝の地で東北アジアの軍事と安保情勢はもちろんのこと地政学的にも重要な位置にあり、大陸進出を進める韓国も積極的に関心を持つべき地域である。写真提供=シン・ジヤン Chol 崇寛大教授 兼写真家

発行日	2015 年 3 月 16 日	発行所	世界平和トンネル財団
発行人	キム・ピョンス	150-714	ソウル市永登浦区国際金融路 8 通 11
編集長	チョン・ソンス		デヨンビルディング 921 号
写真	イ・ジヤンファン	登録	2010 年 9 月 3 日
デザイン	チャン・インソン	登録番号	永登浦 마 000111
		電話	02-3471-7696 FAX 02-3471-7690